

중국 隋唐代 석탑의 특징과 新羅 석탑과의 비교**

嚴基杓*

- I. 서론
- II. 隋唐代 석탑의 건립 현황
- III. 隋唐代 석탑의 양식 분류와 특징
- IV. 新羅와 隋唐代 석탑의 비교
- V. 결론

I. 서론

불교가 중국에 처음 전래된 시기는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後漢 明帝 永平 年間(58~75년)에 당시 수도였던 洛陽에 전해졌다고 한다. 당시 명제는 부처가 나타나는 꿈을 꾸고 사신을 西域에 보냈는데, 사신과 함께 인도 승려 伽葉摩와 竺法蘭이 불교를 전하기 위하여 白馬에 경전과 불상 등을 싣고 왔다고 한다.¹ 명제는 이들을 크게 환영했으며, 사신을 접대하는 鴻臚寺라는 관청을 승려들을 위해 白馬寺로 고쳐지었다고 한다. 그래서 洛陽 白馬寺는 오늘날까지 중국 불교의 初傳地로 알려져 있다.

* 단국대학교

** 이 논문은 2015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의 지원으로 연구되었다.

이 논문은 2016년 6월 11일 개최된 2016 미술사학대회의 한국미술사학회 패널 발표 “동아시아 고대 석조 불탑의 현황과 비교 연구”에서 「중국 수당대 석조불탑의 건립 현황과 특징」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¹ 張馭寰, 『中國塔』(山西人民出版社, 2000), pp. 3-4.

중국에 전래된 불교는 몇 번의 廢佛政策² 있었지만 南北朝時代를 거치면서 중심적인 종교로 자리 잡는다. 그 이후 隋唐代를 거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황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신앙되었다. 그 신앙의 중심에 불탑과³ 불상이 있었다. 이 중에서 불탑은 사찰 가람에서 필수적인 조형물로 중국 불교미술의 발전과 맥을 같이하였는데, 오랜 세월 자연적 인위적 파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국 전역에 많은 양이 유존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 불탑사에서 주류는 磚塔이었는데,⁴ 그에 못지않게 석탑도 상당수 건립되었다.

중국 隋唐代(581~618-907년)와 한국의 三國 및 統一新羅時代(676~935년)는 비슷한 시기에 공존하였고, 양국은 불교를 통한 많은 교류가 있었다. 당시 중국의 선진적인 불교 사상과 문화는 한반도에 상당 부분 영향을 주거나 전래되었다. 따라서 중국 수당대 석탑에 대한 이해는 한국의 고대 석탑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중요한 방편이 될 수도 있고, 양식사적인 측면에서 양국 고대 석탑의 유사점과 차이점 등도 찾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아직까지 중국 불탑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이해가 부족하여 중국 수당대와 한국 신라 석탑과의 역학 관계를 통시적으로 논하기는 어렵지만 그동안 조사한 자료를 중심으로 중국 수당대에 건립된 석탑의 전반적인 현황과 특징, 나아가 신라 석탑과의 차이점 등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II. 隋唐代 석탑의 건립 현황

중국 고대의 사찰 가람에 불탑이 건립되기 시작한 것은 東漢(25~220년) 말기에서 삼국시대 부터인데,⁵ 처음에는 목탑이 세워지다가 서서히 전탑이 건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존하는 중국 최고의 전탑은 520년경에 건립된 嵩岳寺 13層磚塔이다. 그리고 중국에서 석탑은 5세기 전반 경에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甘肅省 酒泉市 石佛灣子에서 출토된 甘肅省 博物館 소장 高善穆 석

² 中國 佛敎史에서 대표적인 廢佛政策으로는 北魏 太武帝 世祖(423~452年)에 의하여 446년부터 452년까지의 廢佛政策, 北周 武帝(560~578年) 때인 574年의 廢佛政策, 唐 武宗(814~846) 때인 845年 會昌廢佛政策 등이 있다.

³ 中國은 佛敎的인塔, 道敎的인塔, 風水 등 기타 목적으로 건립된塔 등 다양한 성격의塔들이 건립되었다. 이 중에서 佛塔은 불교의 교구인 석가모니의 眞身舍利를 봉안한塔, 승려나 재가신자의 유골이나舍利를 모신塔, 발원이나 기념 등을 위한塔 등 다양하다. 이글에서 佛塔은 모든 성격의塔을 의미하며, 石塔은 石造 佛塔의 의미이다.

⁴ 中國에서는 벽돌로 제작된 탑을 지칭할 때 ‘磚塔’보다는 ‘磚塔’이라는 명칭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의미상 큰 차이가 없고, 중국 불교미술사를 다루기 때문에 ‘磚塔’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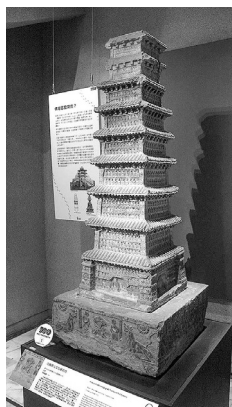
⁵ 서기 220년경 徐州牧 陶謙이 木塔을 건립한 것이 기록상 가장 이른 시기의 佛塔으로 알려져 있다(『后漢書』, 陶謙傳, ‘大起浮圖 上累金盤 下有重樓’).

탑과 白雙銘 석탑(도 1)을 비롯하여 甘肅省의 敦煌, 酒泉, 張掖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北涼時期(397-439년)의 석탑들이다. 北涼石塔들은 규모가 작고, 하부 표면에 남성상과 여성상을 새기며, 그 위에 발원문을 음각하고, 상부에 감실을 마련하여 부처나 보살을 조각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이들 석탑들은 고대 인도의 석조 供養塔과 양식적으로 친연성을 보이고 있어 실크로드를 통한 문물교류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이해되고 있다.⁶

그리고 불교 신앙이 본격화된 남북조시대에는 목탑이나 전탑과 함께 석탑도 많이 건립되기 시작한다. 이 시기의 석탑들은 고층으로 건립되며, 當代의 목탑을 사실대로 翻案한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초기 석탑은 석탑 양식의 기원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현재 臺灣國立歷史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는 朔州崇福寺 석탑(北魏, 466년)이 편년이 확실한 최고의 남북조시대 석탑으로 파악되고 있다(도 2).⁷ 이 석탑은 규모가 작아 건물 내부에 봉안하기 위하여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當代의 목탑을 변안한 다층의 樓閣形 양식이다. 또한 造像이나 승려의 墓塔 용도로도 석탑이 건립되었는데, 대부분 평면이 사각형인 단층 亭閣形 양식이다. 이러한 석탑은 탑신 표면에 감실을 조성하여 그 안에 불상을 새기고, 돛형의 옥개석을 마련한 것이 특징적이다. 대표적으로 葇玉山石刻의 단층 石造 造像塔(도 3)과⁸ 靈泉寺 道憑法師 雙石塔(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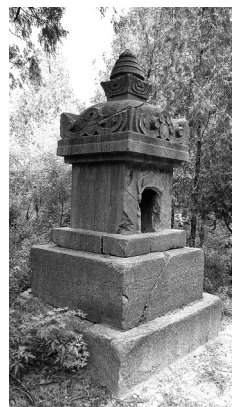
도 1 白雙銘 石塔(北涼, 中國國家博物館)



도 2 朔州 崇福寺 石塔 (466년, 臺灣國立歷史博物館)



도 3 葇玉山石窟 石塔 (북위)



도 4 靈泉寺 道憑法師 石塔(563년)

6 殷光明, 「北涼石塔分期試論」, 『敦煌研究』1997年 第3期, pp.84-92./ 殷光明, 「北涼石塔述論」, 『敦煌學輯刊』1998年 第1期(總第33期), pp.87-107./ 張寶璽, 『北涼石塔藝術』, 上海辭書出版社, 2006, pp.9-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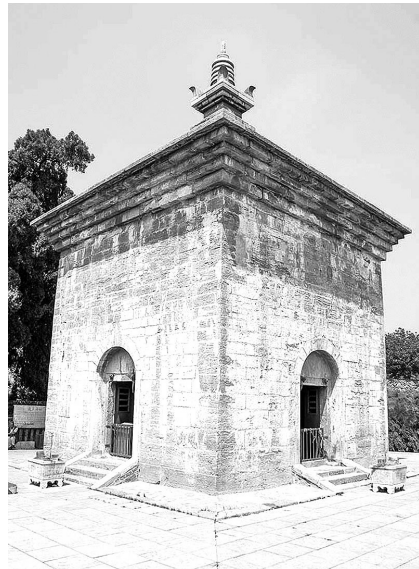
7 張馭寰, 앞의 책, pp.4-5.

8 趙克禮 著, 『陝西古塔研究』(北京 科學出版社, 2007), pp.180-181.

등을 들 수 있다.⁹ 이와 같이 중국 고대의 석탑은 남북조시대를 거치면서 크게 기단부-탑신부-상륜부 3개의 구성 부분으로 조영되는 양식이 성립되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대형 불탑의 지하에 일정한 공간을 마련하여 사리와 각종 莊嚴具를 봉안하는 地宮의 설치도 일반화된다.

중국은 隋唐代에 들어와 불교가 중심적인 종교로 자리 잡으면서 불교미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에 따라 벽돌이나 석재로 제작된 많은 양의 불탑이 세워지며, 석재를 벽돌형으로 다듬어 磚塔처럼 쌓아올린 磚石塔도 건립된다. 磚石塔은 전체적인 외관이나 양식은 磚塔과 유사하지만 불탑의 재료가 기본적으로 석재이기 때문에 석탑의 범주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중국 전역에 소재하고 있는 수당대 석탑의 전반적인 현황은 그동안 파괴되거나 반출된 경우가 많으며, 최근에 새롭게 발굴되거나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수당대의 강역이 넓어, 당시 건립된 석탑의 전체 수량이나 지역별 분포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그동안 필자가 실견 조사한 자료를 중심으로 수당대 석탑의 전반적인 현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하겠다.

수나라 楊堅(541~604년)은 북주의 어린 황제였던 靜帝로부터 581년 양위를 받아 隋(581~618년)을 건국하고, 589년에는 陳을 병합하여 중국을 통일하였다. 당시 隋文帝는 독실한 불교신자로서 직접 舍利 供養을 행하는 등 佛事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그의 불교 정책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仁壽年間(601~604년)에 3회(601년, 602년, 604년)에 걸쳐 실시한 전국적인 사리탑의 건립이었다.¹⁰ 이와 같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사리탑을 건립한 것은 중국 역사상 최초였다. 그런데 당시 전국에 걸쳐 건립된 仁壽舍利塔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다만 神通寺 四門塔과 仙遊寺 法王塔을 비롯한 일부 塔誌가 전해지고 있다.¹¹ 이 중에서 神通寺 四門塔은 석재



도 5 神通寺 四門塔(611년)

⁹ 嚴基杓, 「中國 唐代 僧墓塔에 대한 研究」, 『文化史學』 第28號(韓國文化史學會, 2007), pp. 128-129.

鍾曉青, 「安養靈泉寺北齊雙石塔再探討」, 『文物』 2008年 第1期, pp. 85-91.

¹⁰ 周旻美, 「隋文帝的 仁壽舍利莊嚴 研究」, 『中國史研究』 第22輯(中國史學會, 2003), p. 81.

¹¹ 楊效俊, 「隋唐舍利瘞埋制度的形成原因及特点」, 『考古與文物』 2012年 第4期, pp. 93-100.

를 전탑처럼 결구한 磚石塔인데, 벽돌 형태로 치석된 석재가 상당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순수한 의미의 석탑이라 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불탑이라 할 수 있다(도 5). 이 석탑은 1972년 수리 시에 ‘大業七年造’라는 명문으로 611년 건립되었으며, 내부 사방에 모셔진 불상은 東魏 武定 2년(544년)에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석탑은 중국 불교 전래 초기에 불탑 양식으로 성행했던 사각의 단층 亭閣形 양식을 취하고 있다. 주요 특징은 탑신 사방에 출입문이 있고, 내부에는 통로를 두어 불상에 예불을 올릴 수 있도록 고안했다. 또한 옥개의 상하부에는 일정한 비율로 채감되는 반침단이 형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神通寺 四門塔은 목조로 조영된 작은 규모의 금당과 사리를 봉안한 탑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갖도록 하였으며, 초기 석탑 양식을 보여주는 현존하는 유일한 隋代 석탑이다.¹² 그리고 安養 靈泉寺는 546년 東魏의 道憑法師에 의하여 창건되어 隋文帝 때 國統이었던 靈裕法師가 주석했으며, 唐代에는 유력한 고승들이 머물면서 중요 사찰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靈泉寺에 隋代 들어와 석탑이 건립되었는데, 현재는 파손되어 靈泉寺 展示館에 상륜부 일부만 남아있다(도 6). 상륜부재는 한가운데 찰주공이 시공된 사각의 露盤石과 仰花石 등으로 神通寺 四門塔의 상륜부재들과 친연성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도 6 靈泉寺 隋代石塔 相輪部材(靈泉寺展示館)

唐(618~907년)은 오늘날 西安과 洛陽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 발전하였기 때문에 이 지역에 많은 유적과 유물들이 남아있다. 唐代는 845년 會昌廢佛政策이 추진되어 일시적으로 불교계가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건국 초기부터 말기까지 황실에서 평민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계층들이 불교를 깊게 신봉하였으며 이에 따라 많은 사찰들이 창건되면서 불탑과 불상이 광범위한 지역에 조성되었다.¹³ 당시 건립된 唐代의 불탑들은 처음에는 남북조시대나 수대의 양식을 계승하다가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唐風이 가미된 창의적인 탑과들이 나타난다. 특히 則天武后(재위

¹² 엄기표, 「新羅와 中國 隋唐代 전탑의 양식 비교 연구」, 『新羅史學報』 35(新羅史學會, 2015), pp. 181-182.

¹³ 韓養民 編著, 『佛骨靈光 唐都皇家寺院』(三秦出版社, 2003), p. 9.

690-705년)의 집권과 함께 불교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¹⁴ 우수한 기술력을 보여주는 다종다양한 양식의 불탑이 전국에 건립되었다.¹⁵ 현재 필자가 파악하고 조사한 唐代 석탑들의 현황을 편의상 지역별로 나누어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중국 隋唐代 석탑 현황표¹⁶

時代	省	塔名	建立時期	平面層數樣式	비고
隋	山東省	神通寺 四門塔	611年	四角單層 亭閣形	磚石塔, 石佛坐像은 544年
	河南省	安養 靈泉寺 石塔 相輪部材	隋代	?	露盤石과 仰花石, 隋代로 傳함
唐	甘肅省	炳靈寺 3號石窟 石塔	8C	四角單層 亭閣形	內塔
	陝西省	草堂寺 鳩摩羅什舍利塔	8C	圓形+八角+四角單層 亭閣形	鳩摩羅什(344-413年)
	河南省	洛陽 咸亨3年銘 石塔	672年	四角 高層 密檐形	
		洛陽 關林 長安四年銘 石塔	704年	四角 6層 密檐形	洛陽關林展示館
		洛陽 關林 開元三年銘 石塔	715年	四角 4層 密檐形	洛陽關林展示館
		洛陽 關林 石塔 1	8C前半	四角 6層 密檐形	洛陽關林展示館
		洛陽 關林 石塔 2	8C前半	四角 7層 密檐形	現 洛陽博物館
		洛陽 關林 石塔 3	8C	四角 高層 密檐形	洛陽關林展示館
		孟津 邙山 出土 石塔	8C前半	四角 7層 密檐形	漢光武帝陵 展示館
		鞏縣 石窟 石窟寺 出土 石塔	8C前半	四角 5層 密檐形	鞏義博物館
		龍門 石窟 45號窟 石塔	7C後半-8C前半	四角 4層 密檐形	1層 塔身 龕室
		淇縣 陳婆造心經 7層 石塔	721年	四角 7層 密檐形	淇縣 摘心台公園內
		靈泉寺 雙石塔(2基)	8C前半	四角 9層 密檐形	原位置, 伽藍中心
		陽台寺 雙石塔(2基)	750年	四角 高層 密檐形	原位置, 伽藍中心
		浚縣 隴西尹公 石塔	755年	四角 高層 密檐形	河南省 浚縣 碧霞宮
		內黃 里固 石塔	8C前半	四角 高層 密檐形	里固村 中心 位置
		內黃 花崗 雙石塔(2基)	8C前半	四角 高層 密檐形	移建, 內黃縣文物管理所
		滑縣 石塔	8C前半	四角 高層 密檐形	移建, 滑縣文物管理所
		浚縣 佛勝寺 雙石塔(2基)	8C前半	四角 高層 密檐形	現在 出處 不明
		新鄭縣 荆王 7層 石塔	8-9C	四角 7層 密檐形	中原石刻藝術館
李村 出土 7層 石塔	8-9C	四角 7層 密檐形	偃師 商城博物館		
登封縣 蕭光師塔	9C	八角 單層 亭閣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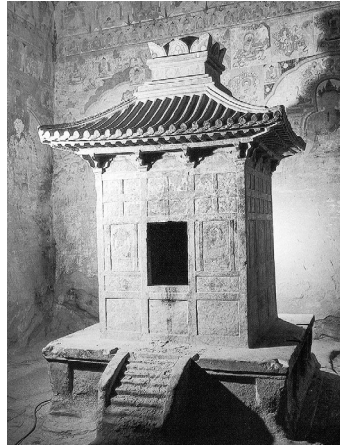
¹⁴ 赴云旗, 「武則天与唐代佛教」, 『五台山研究』(1989(4)), pp. 13-17.

¹⁵ 王仁波 主編, 『隋唐文化』(學林出版社, 1997), pp. 20-24.

¹⁶ 필자가 실견 조사한 中國 隋唐代 石塔 위주로 하여 표를 작성하였다. 이 현황표에 제시된 것 외에도 山東省博物館, 山東省 青州市博物館, 山東省 陽谷縣圖書館, 山東省 泰山的 翠屏山 일대에 여러 基의 唐代 石塔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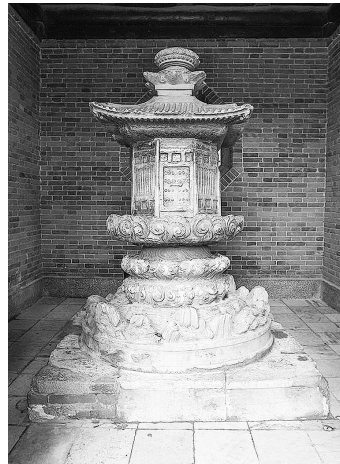
唐	山西省	法興寺舍利塔	673年	四角單層亭閣形	磚石塔, 移建
		法興寺3層雙石塔(2基)	7C後半	四角+八角3層密檐形	移建(원:山西省長子縣慈林山)
		高平開化寺石塔	7-8C	四角高層密檐形	
		羊頭山6號石窟石塔(2基)	7-8C	四角高層密檐形	清化寺
		羊頭山5號石窟圓形石塔(2基)	8C前半	圓形高層密檐形	雙塔, 開元年間(713-741年)
		羊頭山頂上5層圓形石塔	8C前半	圓形5層密檐形	開元年間(713-741年)
		羊頭山頂上7層圓形石塔	8C前半	圓形7層密檐形	開元年間(713-741年)
		沁水縣玉溪石塔	8C前半	四角高層密檐形	
		交城天寧寺石塔(5基)	8-9C	四角/八角單層亭閣形	華嚴經塔
		海會院明惠大師塔	877年	四角單層亭閣形	磚石塔
	山東省	神通寺小唐塔	717年	四角高層密檐形	
		靈岩寺雙石塔(2基)	735年	四角+八角樓閣+密檐形	1層屋蓋石부띠八角, 1基 파손
		石佛寺楊瓊造龍虎塔	743年	四角高層密檐形	山東省博物館, 青州石佛寺出土
		唐代石塔基壇石	8C前半	四角	山東省博物館
		陽谷縣出土石塔	8C前半	四角高層密檐形	青州市博物館, 1955年出土
		唐代石塔1(1層塔身, 1石)	8C前半	四角	青州市博物館, 出土地未詳
		唐代石塔2(1層塔身, 1石)	8C前半	四角	青州市博物館, 出土地未詳
		靈岩寺慧崇塔	天寶年間(742-756年)	四角單層亭閣形	磚石塔
	神通寺龍虎塔	8C	四角單層亭閣形	磚石塔	
	河北省 (北京)	延載元年銘石塔	694年	四角高層密檐形	河北省博物館
		興國寺址15層石塔	710年	四角15層密檐形	解村小學校內
		治平寺石塔	740年	四角高層密檐形	파손
		武安沿平寺石塔	8C前半	四角高層密檐形	파손
		邢台縣南賈鄉石塔	8C前半	四角高層密檐形	
		云居寺夢堂庵石塔	7C後-8C初	四角單層亭閣形	移建
		云居寺石經山東臺石塔	7C後-8C初	四角單層亭閣形	
		云居寺景云銘石塔	711年	四角7層密檐形	移建, 王公
		云居寺太極銘石塔	712年	四角7層密檐形	移建, 田公
		云居寺金仙長公主石塔	721年	四角9層密檐形	唐睿宗(710-712)의 딸
		云居寺開元10年銘石塔	722年	四角7層密檐形	移建, 李公
		云居寺開元15年銘石塔	727年	四角7層密檐形	最多層石塔, 移建, 鄭公
		云居寺石經山施茶亭石塔	8C前半	四角高層密檐形	移建, 2006년 복원
	房山張坊鎮下寺石塔	8C前半	四角7層密檐形	塔銘 문화혁명 때 훼손	
江蘇省	揚州古木蘭院石塔	838年	六角5層樓閣形	宋嘉熙年間(1237-1240年) 移建	
江西省	贛州寶華寺玉石塔	864年	四角單層亭閣形	內塔	
廣東省	龍興寺石塔	9C	八角5層樓閣形		
其他	臺灣神龍二年銘石塔	706年	四角5層密檐形	臺灣震旦藝術博物館(출토미상)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 所藏石塔	8C前半	四角		

唐代 건립된 석탑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먼저 중국내로의 불교 전래 루트였던 실크로드 상에 있는 甘肅省의 炳靈寺 3號 石窟 내부에 唐代 석탑이 있다(도 7).¹⁷ 이 석탑은 석굴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云岡石窟의 塔柱와 유사한 측면을 보이고 있는 단층 亭閣形 양식의 탑으로 8세기 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¹⁸ 그리고 唐의 수도가 위치했던 陝西省은 唐代 불교문화의 중심지로서 唐代 佛蹟이 많이 남아있는데, 碑塔은 비교적 많은 수량이 전해지고 있지만 石塔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현재 陝西省의 草堂寺에 건립된 鳩摩羅什 舍利塔이 盛唐時期에 건립된 대표적인 석탑으로 알려져 있다(도 8).¹⁹ 이 사리탑은 唐代에 와서 鳩摩羅什(344~413년)의 荼毘處를²⁰ 기념하고 추모하고자 基壇부-탑신부-상륜부를 갖춘 전형적인 양식으로 새롭게 건립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²¹



도 7 炳靈寺 3號 石窟內 石塔(8C)

그리고 唐나라 수도였던 西安에서 멀지 않은 지역으로 황하 유역을 끼고 있는 河南省에 상당량의 唐代 석탑이 유존되어 있다. 특히 洛陽은 武則天 때 東都로서 불교계의 중심 도시였다. 그래서 龍門石窟이 조성된 洛陽과 황하를 끼고 있는 安養 등 河南省의 여러 지역에 唐代 석탑이 유존되어 있다. 이 중에서 咸亨三年銘 석탑은 672년 6월 25일 亡者의 영혼을 추복하고 淨土往生을 기원하기 위하여 密檐形 양식으로 건립되었다.²² 이 석탑은 독특하게 무덤 안에 시신



도 8 草堂寺 鳩摩羅什 舍利塔(8C)

¹⁷ 이 석탑은 표면에 채색 흔적이 남아있는데, 明代에 중수되면서 칠해진 것으로 밝혀졌다(黃文昆 責任編輯, 『永靖 炳靈寺』(文物出版社, 1989), p. 213).

¹⁸ 甘肅省文物工作院 炳靈寺文物管理所 編, 『中國石窟 永靖炳靈寺』(文物出版社, 1989), p. 213.

¹⁹ 塔身石에 사각형으로 구획한 후 세로로 '姚秦三藏法師 鳩摩羅什舍利塔'이라고 음각하였다.

²⁰ 史生輝, 『草堂寺志』(陝西省戶縣草堂寺, 2005), p. 383.

²¹ 鄭永鎬, 『中國草堂寺鳩摩羅什舍利塔』, 『亞細亞文化研究』1집(아세아문화연구소, 민족출판사, 1996), p. 57.

²² 霍宏偉, 『洛陽發現唐代咸亨三年石塔』, 『文物』2013年 第11期, pp. 82-86.

이 석탑은 2002년 5월 河南省 洛陽市의 東北郊 楊文 一帶에서 수집되었으며, 石灰巖으로 만들어진 密檐形 四角形 石塔이다. 현재는 파손된 상태로 전체 높이는 168cm이다.

과 함께 봉안되었다. 또한 洛陽의 關林博物館과 龍門博物館에도²³ 唐代 석탑이 소장되어 있는데, 명문이 있는 長安4年銘 석탑(704년, 도 9)과 開元3年銘 석탑(715년, 도 10)을²⁴ 비롯하여 명문은 없지만 이들과 비슷한 시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기의 석탑들이 있다. 孟津 邙山에서 출토된 석탑이 漢光武帝陵 전시관(도 11), 鞏縣石窟 石窟寺에서 출토된 석탑이 鞏義博物館에 소장되어 있기도 하다. 두 唐代 석탑은 양식적으로 강한 친연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河南省 新鄭縣에서 출토된 석탑은 天寶年間(712~756년)에 건립되었으며,²⁵ 洛陽 龍門石窟 45號窟의 입구 쪽에 건립된 석탑도 8세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8세기에 들어와 다양한 유형의 석탑들이 건립되었는데, 이 중에는 석굴이나 유력한 계층의 무덤에서 출토되어 그 조성 배경이 주목된다. 이외에도 河南省에는 건립 시기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석탑이 많다. 예를 들면 淇縣 陳婆造心經 7층석탑은 721년(도 12), 陽台寺 쌍석탑은 750년(도 13), 浚縣 陳西尹公 石塔은 755년 건립되었는데, 모두 1층 탑신에 명문을 새겼다. 그리고 명문은 없지만 이들 석탑과 비슷한 양식을 보이고 있는 安養 靈泉寺 雙石塔(도 14)²⁶, 內黃 里固 石塔, 內黃 花堍 雙石塔, 滑縣 石塔 등이 있다.²⁷ 또한 河南省에는 唐代 末期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석탑이 있는데, 河南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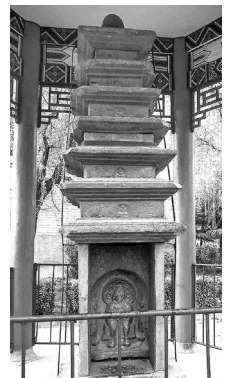
도 9 洛陽 關林 長安四年銘石塔(704년)



도 10 洛陽 關林 開元三年銘石塔(715년)



도 11 孟津 邙山 出土石塔(8C, 漢光武帝陵展示館)



도 12 淇縣 陳婆造心經 7層石塔(721년)

²³ 현재 河南省 洛陽 龍門博物館에 出土地를 알 수 없는 여러 기의 唐代 石塔이 소장되어 있으며, 洛陽 龍門石窟에 는 磨崖塔을 비롯한 여러 기의 唐代 石塔이 유존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劉朝, 『北朝至兩宋時期河南古塔研究』(鄭州大學 碩士論文, 2013)).

²⁴ 全体 銘文은 '大唐開元三年四月二十七日家人石野郟爲曹主 故王元邵造五給浮圖一區爲記'이다.

²⁵ 王景荃, 『河南新鄭縣荆王庄发现两座唐代石塔』, 『中原文物』, 1990年 第2期, pp. 95-96.

²⁶ 楊宝順, 『河南安陽靈泉寺唐代雙石塔』, 河南省古代建築保護研究所, 『文物』, 1986年 第3期, pp. 70-81.

²⁷ 현재는 소재를 알 수 없는 浚縣 佛勝寺 雙石塔도 유사한 양식이다.



도 13 陽台寺 雙石塔(750년)



도 14 靈泉寺 雙石塔(8C)



도 15 法興寺 舍利塔(673년)

偃師市 李村에서 出土된 偃師商城博物館 소장 7層石塔과 登封縣 蕭光師 石塔 등이 전해지고 있다. 蕭光師 石塔은 승려의 사리탑으로 석재를 벽돌형으로 치석하여 평면 팔각형의 단층 亭閣形 양식으로 건립한 점이 특징적이다.

山西省은 唐을 건국한 高祖의 原鄉인 太原이 있는 곳으로 陝西省이나 河南省 등과 함께 唐代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다. 그래서 唐代의 사찰들이 교통로 상의 주요 도시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唐代 석탑들도 長治市와 高平市 등 낙양에서 비교적 가까운 지역이나 북쪽으로 통하는 주요 교통로 상에 위치한 경우가 많다. 현재 山西省에서 가장 주목되는 석탑은 法興寺에 남아있는 3기의 석탑이다.²⁸ 먼저 法興寺 舍利塔은 磚石塔으로 隋代의 神通寺 四門塔과 유사한 조영 기법을 보이고 있는데, 벽돌형으로 다듬은 석재를 결구하여 평면 사각형의 2층 亭閣形 양식으로 건립되었다(도 15). 또한 法興寺 舍利塔 앞에는 동일한 구조와 양식을 취하고 있는 雙塔이 건립되어 있는데, 신라시대 석탑들과 평면은 다르지만 전체적인 구조와 양식 등이 강한 유사성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도 16). 이 석탑들은 673年 건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唐代의 다양한 양식의 석탑과 관련하여 가

장 주목되는 곳은 高平市에 소재한 舍利山 開化寺와 羊頭山 石窟이다. 高平 開化寺 石塔은 낮고 간략한 기단부를 마련한 다음 독특한 탑신부를 구성하였는데, 이러한 樓閣形 양식은 중국에서도 초기적인 석탑 양식으로²⁹ 百濟 석탑의 기법이나 양식 등과 친연성을 보이고 있어 주목되고 있

²⁸ 法興寺는 댐 공사로 인한 수몰로 현재의 위치로 옮겨졌다. 현재 평면 사각형 석탑 1기, 평면 팔각형 석탑 2기, 명문이 있는 석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석조물들이 유존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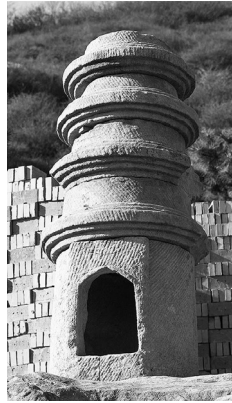
²⁹ 張馭寰, 앞의 책, p. 2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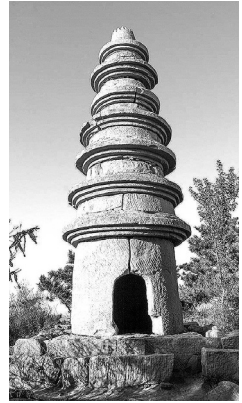
도 16 法興寺 雙塔(西塔)



도 17 羊頭山 6號石窟 石塔



도 18 羊頭山 5號石窟 圓形



도 19 羊頭山 頂上 7層 石塔
石塔

다. 이러한 유사성으로 中國 古代 石塔이 韓國 古代 石塔의 始原에 영향을 준 것으로도 추정되고 있다.³⁰ 또한 羊頭山 石窟에도 여러 기의 唐代 石塔이 있는데(도 17-19), 다층 樓閣形이나 密檐形 양식을 취하고 있다.³¹ 이 석탑들은 7-8세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보기 드물게 평면 圓形의 다층 석탑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³² 沁水縣에는 파손이 심하지만 河南省의 陽台寺와 靈泉寺의 唐代 石塔과 유사한 양식을 보이고 있는 玉溪石塔이 있다. 이 석탑은 치석 수법과 양식으로 보아 8세기 전반경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交城縣의 天寧寺에도 中唐에서 晚唐時期에 걸쳐 건립된 여러 기의 소형 석탑들이 있는데, 발원이나 祈念的인 성격의 經塔으로 탑신 표면에 화려한 문양과 조각상들이 장엄되어 있다. 이 석탑들은 평면이 사각 또는 팔각으로 단층 亭閣形 양식을 취하고 있다.³³ 平順縣의 海會院址에는 明惠大師 舍利塔이 남아 있는데, 평면 사각형으로 기단부는 상당히 높은 須彌壇으로 마련되었다(도 20). 이 석탑은 승려의 사리탑으로 단층의 亭閣形 양식이며, 탑신의 壁碑에 의하여 877년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³⁴ 唐代 石塔들은 건립 시기가 떨어질수록 표면의 여러 곳에 화려한 紋樣이나 莊嚴像들을 많이 조각하는 경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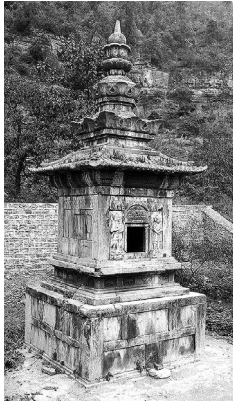
³⁰ 張馭寰, 앞의 책, pp. 284-285. / 張馭寰, 『中國古塔集萃』卷二, 앞의 책, pp. 18-20.

³¹ 高平 舍利山 開化寺 石塔이나 羊頭山 6號石窟 石塔들과 유사한 양식의 唐代 石塔들이 山西省 運城市 一帶에도 여러 기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양식은 唐代 初期에 일반화된 석탑 양식으로 추정되고 있다(張國維, 「運城市保存的几座唐代小型石塔」, 『文物世界』2005年 第2期, pp. 3-6).

³² 張馭寰, 「山西羊頭山的魏, 唐石塔」, 『文物』1982年 第3期, pp. 38-41.

³³ 張馭寰, 『中國古塔集萃』卷二(天津大學出版社, 2010), pp. 79-80.

³⁴ 劉敦楨 著·鄭沃根 外 共譯, 『中國古代建築史』(世進社, 1995), p. 243.



도 20 海會院 明惠大師石塔(877년)



도 21 神通寺 龍虎塔



도 22 靈岩寺 東石塔(735년)



도 23 石佛寺 楊瓌造龍虎塔(743年, 山東省博物館)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五代와 宋代로 계승되어 그 이후 화려한 양식의 佛塔들이 등장하게 된다.

다음으로 山東省은 황하의 하류 지역으로 바다로 나가는 전초기지와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唐代에 들어와 불교문화가 상당히 발전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唐代의 주요 佛蹟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佛塔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隋唐代에 들어와 神通寺와 靈岩寺 등을 비롯하여 유력한 사찰들이 있었으며, 오늘날 淸州市와 惱博市 일대에는 여러 기의 隋唐代 石塔들이 전해지고 있다. 현재 神通寺에는 2기의 唐代 석탑이 있는데, 小唐塔은 전형적인 唐代 석탑의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717년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³⁵ 또한 龍虎塔은 唐代 石塔 중에서 규모가 크고, 화려한 석탑이다(도 21). 이 석탑은 전체적인 평면이 사각형이며, 基壇部는 卓子式으로 하여 높게 3단으로 구성하였다. 1층 탑신은 각 면에 門扉를 마련하고, 그 주변에 神將像과 飛天像 등을 조각하였다. 또한 공포부와 옥개석은 목조건축물의 공포부와 처마부를 사실대로 번안하였다. 이 석탑은 석재와 벽돌을 동시에 활용한 磚石混用塔으로 8세기 후반경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장엄적인 탑신부는 五代와 宋代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양식으로 주목되고 있다. 그리고 山東省 靈岩寺의 般舟殿址와 塔林에 唐代 석탑이 전해지고 있다(도 22). 般舟殿址에는 원래 동일한 양식의 雙塔이 건립되었는데, 현재는 동탑만 남아있다. 이 석탑은 기단부와 1층 탑신은 사각형, 1층 옥개석부터 상층으로는 팔각형의 평면을 적용하여 특징적이다. 基壇部는 須彌座 형식으로 마련

³⁵ 1층 탑신 동쪽 면에 '開元五年丁巳二月辛丑朔八日戊申'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하였으며, 1층 탑신 내부공간에 별도의 조각상을 새겨 신앙과 예불의 의미를 더하였다. 이 석탑은 명문에 의하여 735년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靈岩寺 塔林에도 승려의 사리탑인 慧崇塔이 전해지고 있는데, 평면 사각의 2층 亭閣形 양식으로 慧崇의 행적을 고려할 때 天寶年間(742~756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³⁶ 이외에도 山東省 博物館과 清州市 博物館에도 파손되거나 결실된 唐代의 석탑들이 소장 전시되어 있다. 이 석탑들은 靈泉寺, 陽台寺, 靈岩寺, 神通寺 등에 건립된 唐代 석탑들과 양식적으로 강한 친연성을 보이고 있어, 이들과 비슷한 시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에서 清州市 石佛寺에서 출토된 楊瓚造 龍虎塔은 명문에 의하여 743년 건립되었으며(도 23), 陽谷縣에서도 여러 基의 唐代 석탑이 출토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³⁷

오늘날 河北省은 唐代의 불교문화가 성행했던 山西省, 河南省, 山東省 등과 인접하고 있으며, 고대시대 東北三省地域과 한반도로 통하는 주요 교통로가 있었던 곳이었다. 오늘날 河南省의 安養을 통하여 河北省의 邯鄲市-邢台市-石家莊市-保定市-北京市로 이어지는 루트는 古代에서 現代에 이르기까지 주요 교통로였다. 그래서 이들 지역에는 遼-金-元-明-清代에 건립된 많은 불탑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唐代 건립된 석탑들도 상당수 유존되고 있다. 먼저 河北省 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는 延載元年銘 석탑은 현재 1층 탑신만 남아있는데,³⁸ 그 표면에 새겨진 218字의 명문에 의하여 694년 7월 1日 宋이隆 兄弟가 발원하여 건립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河北省 博野縣 解村小學校 내에 興國寺址 석탑이 옮겨져 있는



도 24 興國寺址 15層 石塔(710년)



도 25 治平寺 石塔(74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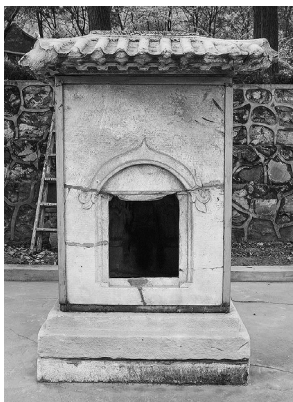
³⁶ 靈岩寺編輯委員會編, 『靈岩寺』(北京文物出版社, 1999), p. 4-6.

³⁷ 이외에도 山東省 陽谷縣에서는 또 다른 1基의 唐代 石塔이 출토되어 현재 陽谷縣 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劉善·孫懷生, 『山東陽谷縣關莊唐代石塔』, 『考古』1987年 01期, pp. 48-52).

³⁸ 林章芹, 『武周時期石塔銘考釋』, 『文物春秋』2010年 6期, pp. 70-72.

이 石塔材는 河北省 平鄉縣 大理村에서 출토되어 2006년 河北省博物館에 소장되었다.

데, 탑신 표면의 명문에 의하여 710년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도 24). 이 石塔은 15층으로 고층이며, 唐代의 전형적인 密檐形 양식을 보이고 있다. 또한 石家莊市の 治平寺(嘉應寺)와 武安市的 沿平寺에도³⁹ 8세기 전반 양식의 唐代 石塔이 유존되어 있다. 治平寺 石塔은 파손이 심한 상태인데 다행히 명문이 음각된 탑신면은 잘 남아있다(도 25). 이 석탑은 명문에 의하면 740年 11月 부처님께 供養하기 위하여 건립했다고 한다. 邢台縣 南賈鄉의 石塔도 결실된 부재가 많지만 탑신부의 양식으로 보아 전형적인 唐代 석탑임을 알 수 있다. 원래 이곳에는 동일한 양식의 黑塔과 白塔이 雙塔으로 나란히 세워져 있었는데, 문화대혁명 때 훼손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北京 房山 일대와 云居寺, 張坊鎮의 下寺에는 총 9기의 唐代 석탑이 유존되어 있다(도 26-28). 특히 云居寺에는 7기의 唐代 석탑이 남아있는데, 명문에 의하여 景云二年銘石塔은 711년 4월 8일, 太極元年銘石塔은 712년 4월 8일, 開元十年銘石塔은 722년 4월 8일, 開元十五年銘石塔은 727년 3월 8일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⁴⁰ 또한 石經山 金仙公主石塔은 721년 건립되었는데, 金仙公主는 706년 출가하여 女道士가 된 후 云居寺에 머물며 刻經事業에 크게 공헌한 인물이었다.⁴¹ 이 석탑들은 대부분 墓塔의 성격의 供養塔으로 건립되었다. 房山 일대와 云居寺에 건립된 唐代 석탑들은 다층의 密檐形 양식과 단층의 亭閣形 양식으로 분류된다. 이와 같이 唐의 수도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진 北京의 云居寺에 전형적인 唐代 석탑들이 여러 기 건립되었다는 것은 이 지역 불교계의 중



도 26 云居寺 夢堂庵 石塔



도 27 云居寺 太極元年銘石塔
(712년)



도 28 云居寺 開元十五年銘石塔
(727년)

³⁹ 宋新盛·王志榮·李相如, 「武安市沿平村唐代石塔」, 『文物春秋』, 2004年 第6期, pp. 121-124.

⁴⁰ 孫勤, 「云居寺四座唐代石塔銘文的試析」, 『北京聯合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第12卷 第4期 總第46期(2014年 10月), pp. 15-19.

⁴¹ 汪建民·侯偉, 『北京的古塔』(學苑出版社, 2003), pp. 77-85.

심 사찰과 唐代 佛教文化의 전파 루트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⁴²

이외에도 江蘇省의 揚州市에는 古木蘭院 석탑이 유존되어 있는데, 평면 육각형 5층석탑으로 838년 건립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도 29).⁴³ 이와 유사한 양식으로 廣東省의 龍興寺 석탑이 있는데, 보수가 많이 되기는 했지만 古木蘭院 石塔과 마찬가지로 唐代 말기의 석탑 양식을 보이고 있어 9세기대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江西省 贛州의 寶華寺에도 唐代 말기에 건립된 玉石塔이 전해지고 있는데, 건물 내부에 供養 목적으로 건립된 內塔으로 864년 건립되었다고 한다. 이 석탑은 須彌座 형식의 기단부를 마련한 평면 사각형의 단층 亭閣形 양식을 취하고 있다. 이외에도 唐代 석탑으로 출토지는 알 수 없지만 臺灣 震旦藝術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는 神龍二年銘 석탑이 있는데, 1층 탑신에 706년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는 명문이 있다.⁴⁴ 또한 미국 메트로 폴리탄미술관에도 화려한 조각상이 새겨진 탑신이 소장되어 있는데, 조각 기법과 양식 등으로 보아 8세기 전반경에 건립된 唐代 석탑의 1층 탑신석으로 추정된다.



도 29 江蘇省 揚州 古木蘭院 石塔(838년)

Ⅲ. 隋唐代 석탑의 양식 분류와 특징

중국 佛塔은 재료에 따라 土塔, 泥塔, 木塔, 石塔, 磚塔, 木磚混用塔, 磚石混用塔, 琉璃塔, 銅塔, 鐵塔, 金塔, 銀塔 등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다.⁴⁵ 또한 중국은 부처의 숭례를 봉안한 塔婆뿐만 아니라 僧侶나 在家信者의 遺骨이나 숭례를 봉안한 墓塔(僧墓塔, 浮屠) 등 다양한 성격과 기능의 탑파들이 건립되었다. 현재 건립된 수량과 전형양식이라는 측면에서 대표적인 중국 佛塔은

⁴² 嚴基杓, 「中國 云居寺의 唐代 石塔에 대한 考察」, 『東岳美術史學』 第9號(東岳美術史學會, 2008), pp. 213-236.

⁴³ 이 석탑은 南宋 嘉熙年間(1237-1240年)에 현 위치로 移建되었으며, 淸 乾隆年間에 대대적인 보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 석탑은 이진과 보수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부재들이 추가되어 원래의 모습에서 많이 변형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塔身石과 屋蓋石 등은 당대 석탑 양식을 함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⁴⁴ 震旦藝術博物館, 『佛教文物選粹 2』(震旦文教基金會編纂委員會, 2005), p. 147.

⁴⁵ 常青, 『中國古塔의 藝術歷程』(陝西人民美術出版社, 1998), p. 7.

磚塔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중국은 隋唐代에 들어와 중국 불탑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磚塔을 비롯하여 석탑 등 다양한 재료와 양식의 불탑들이 전국의 주요 사찰에 건립되었다. 특히 隋 仁壽年間 3회에 걸쳐 시행된 전국적인 佛舍利塔의 건립은 중국 대륙의 광범위한 지역까지 불탑이 건립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 이후 唐代는 불교의 성행과 함께 불교미술이 크게 발전하면서 신앙과 예배의 주요 대상인 佛塔이 국가와 사찰 주도에 의하여 唐의 疆域인 전국 각지에 상당량이 건립되었다. 특히 玄奘(602-664년)은 인도에서 가져 온 방대한 경전을 그의 제자였던 圓測(613-696년)과 窺基(632-682년) 등과 함께 번역 보급함으로써 불교 교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다양한 종파가 형성되면서 다양한 불교미술이 성행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에도 宋-遼-金-元-明-清代를 거치면서 시대별로 부침은 있었지만 불교가 중심적인 신앙으로 자리 잡으면서 다종다양한 많은 양의 불탑이 건립되었다. 이러한 중국 불탑들은 오랜 세월로 인한 자연적인 인멸이나 廢寺, 문화대혁명 등으로 상당량이 파손되기도 했지만 오늘날까지 유존되고 있는 수량이 상당하다.

현재 중국 隋唐代의 불탑은 당시 주요 교통로가 있었으며 불교가 성행했던 甘肅省, 泗川省, 陝西省, 河南省, 山西省, 山東省, 河北省, 江蘇省 등에 비교적 많은 수량이 유존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존하는 隋唐代 磚塔들도 이와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⁴⁶ 그리고 隋唐代의 石塔들도 甘肅省, 陝西省, 河南省, 山西省, 山東省, 河北省 등을 중심으로 확인되고 있어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江蘇省, 江西省, 廣東省 등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외에도 중국에서 반출되어 외국에 현존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알려진 것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그런데 唐代의 교통이나 통신, 지리적인 특성이나 행정구역 등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오늘날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현존하는 唐代 石塔의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河南省·山西省·山東省 지역에 상당히 많은 편이다. 이 지역들은 唐代에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주요 무대였다. 다만 현재 唐의 수도가 있었던 陝西省에는 唐代 건립된 석탑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는 현존하는 수량이 많지 않을 뿐이지 唐代에는 가장 많은 양의 석탑이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河北省과 北京 일대의 사찰에도 唐代 석탑들이 많이 확인되고 있다. 이는 한반도로 가는 주요 육로 교통로가 이 지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여러 사찰이 교통로 상에 있었을 것이고, 그러한 사찰에 불탑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석탑이 건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北京 云居寺에는 盛唐時期에 세워진 다양한 성격의 석탑이 집중적으로 건립되어 있어 주목

⁴⁶ 嚴基杓, 앞의 논문, pp. 169-215.

된다. 이와 같이 唐代 석탑의 분포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점은 중국 고대 문화의 전개에 있어서 중요했던 황하 유역을 중심한 지역에서도 고대의 교통로 상에 위치한 도시들을 중심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황하 유역을 중심으로 할 때 그 이북 지역에 唐代 석탑이 많이 건립된 점도 특징적이다. 그중에 대표적인 도시로 河南省의 洛陽과 安養 일대, 山西省의 長治 일대, 山東省의 齊南과 淸州 일대, 河北省의 邯鄲과 石家莊 일대, 北京 房山 일대를 들 수 있다. 이들 지역은 南北朝時代 이후 隋唐代를 거쳐 宋代까지 수도 또는 중요 도시로서 역할을 했던 곳이었다. 그리고 山西省 長治市의 羊頭山石窟, 北京 房山一帶와 云居寺, 山西省 交城縣의 天寧寺 등에도 많은 수량의 唐代 石塔이 집중적으로 건립되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이들 석굴과 사찰들이 唐代에 크게 번성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그리고 현존하는 중국 隋唐代 석탑의 전체 수량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사찰과 관련되어 불탑의 성격을 갖는 石塔은 대략적으로 100여기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에는 우리나라처럼 각 부재의 규격에 맞추어 치석 결구한 본래적 의미의 石塔도 있으며, 神通寺 四門塔과 法興寺 舍利塔처럼 대형 석탑의 경우 각 부재를 벽돌형으로 치석하여 건립한 模磚石塔 계열도 있다. 현재 중국 模磚石塔은 석재를 대형으로 치석하였기 때문에 磚石塔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본래적 의미의 石塔은 일반적으로 작은 규모로 세워지며, 수십 개의 부재가 결구된 磚石塔은 대형 규모로 건립된다. 이러한 모든 종류의 隋唐代 石塔들은 전체적인 치석과 결구 수법, 탑신부의 外觀 등에 따라 크게 亭閣形, 密檐形, 樓閣形 樣式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⁴⁷

먼저 亭閣形 양식은 단층으로 구성된 목조 건축물의 亭閣처럼 건립된 석탑을 지칭한다. 이 양식은 일반적으로 기단부는 架構式으로 하여 낮게 마련하고, 塔身은 높게 구성하고 門을 개설하여 내부로 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탑신 내부에는 불상 또는 祖師像을 봉안하거나 舍利莊嚴具 등 특정한 奉安物을 납입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옥개는 상하부에 여러 단으로 구성된 받침을 두거나, 목조 건축물의 공포나 지붕을 사실적으로 변안하기도 했다. 이러한 隋唐代의 석탑으로는 神通寺 四門塔, 法興寺 舍利塔, 云居寺 夢堂庵 石塔, 炳靈寺 3號 石窟內 石塔, 靈岩寺 慧崇塔 등이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亭閣形 樣式을 취하면서 기단부를 여러 단으로 하여 높게 구성한 草堂寺 鳩摩羅什 舍利塔, 神通寺 龍虎塔, 寶華寺 玉石塔, 海會院 明惠大師塔 등 발전된 구조를 보이고 있는 석탑도 있다. 이 중에서 神通寺 四門塔과 法興寺 舍利塔은 隋唐代 건립된

⁴⁷ 張馭寰, 앞의 책, pp. 94-95.

亭閣形 석탑 양식의 시원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草堂寺 鳩摩羅什 舍利塔과 海會院 明惠大師塔은 唐代 건립된 승려의舍利塔으로 亭閣形 석탑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그런데 亭閣形 양식의 석탑은 隋唐代 바위 면에 많이 조성된 磨崖塔의 양식과 강한 친연성을 보이고 있다. 磨崖塔은 바위 면에 별도의 舍利孔이나 龕室을 마련하여 亡者의 遺骨이나 舍利를 봉안하거나 살아생전 모습을 浮彫像으로 새기기도 했다. 이러한 磨崖塔은 南北朝時代부터 조성되기 시작하여 隋唐代에 들어와 특정 지역의 사찰을 중심으로 성행하였다(〈표 2〉 참조). 그런데 磨崖塔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발원에 의하여 개착되거나, 亡者의 死後 追福과 極樂往生을 염원하기 위하여 조성되는 경우가 많았다.⁴⁸ 이와 마찬가지로 唐代 건립된 亭閣形 樣式의 석탑도 密檐形이나 樓閣形 樣式에 비하여 승려나 재가신자의 墓塔으로 많이 건립된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亭閣形 양식이 佛家에서 승려나 재가신자의 墓塔 조성 시 중요 양식으로 채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중국 隋唐代 亭閣形 磨崖塔

			
靈泉寺 萬佛溝 靜證法師 碎身塔 (4호, 594년)	靈泉寺 萬佛溝 道寂願生 灰身塔 (68호, 601년)	靈泉寺 萬佛溝 逸名塔 (66호, 654년)	神通寺 千佛崖 無名 磨崖塔

다음으로 密檐形 양식은 다층의 목탑처럼 탑신부를 구성한 석탑을 지칭한다. 이러한 양식의 불탑은 기단부를 낮게 마련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안정된 구조 기법의 架構式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탑신부는 고층으로 구성되는데, 1층 탑신은 상당히 높게 하고, 2층부터 꼭대기 층

⁴⁸ 大內文雄, 「寶山靈泉寺石窟塔銘の研究 -隋唐代の寶山靈泉寺-」, 『東方學報』 第69冊(京大大學人文科學研究所, 1997), pp. 287-355.

까지는 탑신을 현격하게 낮게 하여 탑신부가 상당히 촘촘하게 보이도록 한 석탑이다. 密檐形 양식은 석탑과 磚塔을 불문하고 중국 불탑사에서 가장 많이 건립된 기본적인 유형이자 대표적인 양식이기도 하다. 이러한 密檐形 양식은 중국 불탑사에서 唐代에 들어와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오랜 기간 동안 성행하였다. 현재 隋代 건립된 密檐形 석탑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隋代에 들어와 密檐形 磚塔이 많이 건립된 것으로 보아 密檐形 石塔도 건립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唐代에 들어와 密檐形 양식의 석탑은 磚塔과 마찬가지로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양식으로 자리 잡게 된다. 현재 洛陽 關林과 龍門博物館에 소장된 唐代 초기 건립된 석탑들을 비롯하여 河南省과 山西省 일대에서 확인되고 있는 석탑들이 密檐形 양식을 취하고 있다. 唐代 초기에 건립된 密檐形 양식의 석탑은 전체적인 규모가 작아 한 돌로 치석한 경우가 많으며, 기단부는 臺石形으로 하여 낮고 간략하게 구성하였다. 그리고 탑신부에서 1층 탑신은 높게 하여 각 면에 불상을 새긴 佛龕을 마련한 경우가 많으며, 2층부터는 낮은 탑신과 옥개를 구성하여 석탑의 전체적인 외관이 세장하다. 또한 상륜부도 낮고 간략하게 구성한 것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唐代 초기의 密檐形 양식 석탑은 서서히 시간이 흘러 盛唐時期에 이르면 정연하고 안정된 구조를 갖추게 되어, 基壇部-塔身部-相輪部를 갖춘 전형적인 양식으로 변화된다. 대표적으로 神通寺 小唐塔, 靈岩寺 東石塔, 陽台寺 雙石塔, 靈泉寺 雙石塔, 內黃 花堀 雙石塔, 滑縣 석탑, 石佛寺 楊瓚造 龍虎塔, 興國寺址 15層 석탑, 武安 沿平寺 석탑, 北京 云居寺 석탑들이 해당된다. 이 석탑들은 대부분 8세기 초반경부터 9세기 중반경까지 건립되었다. 이처럼 盛唐時期에 성행한 密檐形 양식의 석탑들은 이전보다 석탑의 전체적인 규모가 커지고, 층수도 높아지면서 여러 부재들이 치석 결구되어 부재수가 상당히 많아지게 된다. 그리고 기단부는 불상 대좌처럼 여러 단으로 구성된 須彌座 형식으로 마련되는데, 그 표면에 八部衆像이나 獅子像 등 護法神衆像을 조각 배치하였다. 또한 奏樂像이나 僧像을 조각하여 供養의 의미를 더하였다. 탑신부는 7층 이상의 고층으로 구성되는데, 탑신 높이가 1층은 상당히 높고, 2층부터는 현격하게 낮아진다. 그리고 1층 탑신 정면에는 내부로 통하는 문을 개설하고, 탑신 내부에 별도의 큰 공간을 마련하였으며, 그 내부 표면에 佛法守護나 供養의 의미로 조각상을 새긴 경우가 많다. 또한 門扉 좌우에는 仁王像을 새기고, 상부에는 獸面像을 중심으로 龍形像이나 供養像을 볼륨감있게 조각하여 佛法守護와 供養의 의미를 분명하게 표출하였다. 옥개석은 상하부에 낮은 받침단을 마련하였는데, 기단부나 1층 탑신의 치석 수법에 비하면 상당히 간략하고 평박하게 치석 결구하였다. 盛唐時期의 전형적인 양식이었던 密檐形 양식의 석탑은 기단부와 1층 탑신은 상당히 정교하고 많은 조각상들을 배치하여 莊嚴的으로 구성했지만, 상대적으로 2층부터는 간략하고 평박한 부재들이 치석 결구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표 3〉 참조).

〈표 3〉 중국 唐代 석탑 1층 탑신

<p>云居寺 開元十五年銘石塔 1層 塔身(727년)</p>	<p>靈岩寺 東石塔 1層 塔身(735년)</p>	<p>陽台寺 東石塔 1層 塔身(750년)</p>	<p>靈泉寺 東石塔 1層 塔身 內部</p>

樓閣形 양식은 일반적으로 磚塔에서 많이 채용되었는데, 옥개를 기와지붕 형태로 구성하고, 각 층에는 전방을 관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의 불탑을 지칭한다. 그래서 이 탑은 기본적으로 대형 규모로 건립되며, 불탑 내부에 오르내릴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각 층의 탑신을 비교적 높게 구성하고, 기와지붕 형태의 옥개를 올렸다. 隋唐代 석탑 중에서 엄격한 의미에서의 樓閣形 석탑은 아니지만 樓閣形 양식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석탑들이 건립되었다. 대표적으로 唐代 초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羊頭山 3號石窟 석탑, 中唐末期에서 晚唐時期에 걸쳐 건립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揚州 古木蘭院 석탑과 龍興寺 석탑 등이 있다. 이 석탑들은 전체적인 외관이 密檐形 양식과 유사하지만 각 층의 탑신을 높게 구성하였으며, 탑신 각 면에 실제 사용되지는 않지만 목조건축물의 문을 변안한 門扉 또는 佛龕을 마련하였다. 특히 옥개는 기와지붕을 변안하였다. 이와 같이 唐代에 들어와 密檐形 樣式 석탑이 성행하면서 樓閣形 양식 석탑이 많이 건립되지는 않았지만, 樓閣形 양식의 磚塔이 많이 건립되면서 樓閣形 양식의 석탑도 여전히 하나의 양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隋唐代 석탑의 양식은 크게 亭閣形, 密檐形, 樓閣形 등이 공존하고 있었는데, 亭閣形 양식의 석탑은 隋唐代에 지속적으로 건립되었으며, 密檐形 양식은 盛唐時期인 8世紀代에 집중적으로 건립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樓閣形 양식은 크게 성행하지는 않았지만 唐代 초기와 후기에 건립되었다. 이 중에서 密檐形 양식이 중국의 磚塔 양식과 마찬가지로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隋唐代 석탑 양식의 주류를 형성하였다(〈표 4〉 참조).

한편 隋代나 唐代 초기에는 석탑도 磚塔과 마찬가지로 부처의 사리를 봉안한 佛舍利塔의

성격으로 많이 건립되었다. 그런데 唐代에 들어와 서서히 시간이 흐르면서 불교가 성행하게 되고, 부처의 사리에 대한 신성한 인식과 함께 숭례信仰이 높아졌고, 각종 佛事를 황실이나 중앙정부가 직접 관여하게 되면서 부처의 사리는 일반적으로 대형 磚塔에 많이 봉안되었다. 磚塔으로 건립된 대형의 佛舍利塔은 사찰 가람의 한가운데 배치되어, 많은 불도들의 신앙과 예불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사찰의 위상을 나타내는 상징물이기도 했다. 이처럼 中國 佛塔史에서 대형 磚塔은 당대에 들어와 佛舍利塔의 전형적인 양식으로 자리 잡게 되며, 그 이후에도 그러한 경향은 지속된다. 반면 재료의 특성상 磚塔처럼 대형 규모로 건립하기 힘든 석탑은 唐代 초기를 지나 盛唐 時期가 되면서 佛舍利塔보다는 승려의 墓塔이나 發願塔, 무덤에 봉안하여 極樂往生을 염원하는 供養塔 등으로 많이 건립되었다. 그래서 비교적 규모가 작은 亭閣形樣式의 석탑은 승려의 墓塔으로 많이 채용되었으며, 密檐形 양식의 석탑은 發願이나 供養 등을 위한 목적으로 많이 건립되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 4〉 중국 隋唐代 석탑 양식표

구분	隋(581~618년)	唐(618~907년)							
		7C~8C						9C	
亭閣形	神通寺 四門塔(611년)	法興寺 舍利塔(673년)	云居寺夢堂庵石塔(7C後-8C初)	草堂寺鳩摩羅什舍利塔(8C)	炳靈寺 3號石窟石塔(8C)	靈岩寺 慧崇塔(8C)	神通寺 龍虎塔(8C)	寶華寺 玉石塔(864년)	海會院 明惠大師塔(877년)
密檐形		洛陽關林長安四年銘石塔(704년)	洛陽關林石塔2(8C前半)	興國寺址 15層石塔(710년)	云居寺 金仙長公主石塔(721년)	靈泉寺 雙石塔(8C前半)	內黃里固石塔(8C前半)		李村 出土 7層石塔(9C)
樓閣形	羊頭山 3號石窟石塔(7-8C)						揚州 古木蘭院石塔(838년)	龍興寺 石塔(9C)	

IV. 新羅와 隋唐代 석탑의 비교

중국은 재료 측면에서 석탑의 始原이 상당히 올라가지만, 사찰 가람에서 佛舍利를 봉안한 신앙의 대상물로서 基壇部-塔身部-相輪部로 구성된 典型的인 양식을 갖춘 석탑이 건립되기 시작한 것은 南北朝時代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불교가 後漢 永平年間(58-75年)에 들어온 점을 고려할 때 중국 불교미술사에서 석탑은 불교가 전래된 지 약 400여년이 흐른 5세기 중후반 경에 전형적인 석탑이 건립되었으며, 6世紀代에 들어와 北朝를 중심으로 석탑 건립이 본격화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南北朝時代에는 佛塔이 각 왕조의 수도를 비롯한 중심 도시에 많이 건립되었다. 이러한 전통이 불교의 성행과 함께 隋唐代까지 그대로 계승되면서 많은 양의 佛塔이 건립되었는데, 石塔뿐만 아니라 磚塔을 비롯한 다종다양한 佛塔들이 건립되었다. 그리고 佛塔의 건립과 분포가 隋唐代에 들어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양상은 石塔도 마찬가지로 여서 오늘날까지 상당량의 隋唐代 石塔이 전해지고 있다.

한국은 4세기 후반경에 高句麗와 百濟가 먼저 불교를 공인했으며, 그 직후에 가람이 조성된 것으로 전하고 있다. 그런데 백제가 7세기 초반경에 삼국 중에서 가장 먼저 목탑을 사실대로 翻案한 석탑을 건립했다. 현재 彌勒寺址 석탑과 定林寺址 오층석탑 2기가 유존되어 있는데, 두 석탑의 건립 시기 선후에 대한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미륵사지 석탑이 먼저 건립되고 그 직후에 정림사지 오층석탑이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륵사지 석탑은 해체 시 발견된 「金製舍利奉安記」에 의하여 7세기 전반경에 건립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신라는 삼국통일 이전에도 석탑이 건립되기는 했지만 통일신라시대 들어와 感恩寺址와 高仙寺址 삼층석탑 등 7세기후반부터 석탑 건립이 본격화되어, 8세기대에는 수도를 중심으로 성행하게 된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한국은 불교가 공인된 지 약 250년 정도 지나 典型樣式의 석탑이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石塔이 처음 건립되고 나서 100여년 정도가 흐르면서 석탑은 한국 불탑의 주류로 형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이 한국과 중국 모두 典型的인 석탑 양식의 출발은 목탑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현존하는 자료에 의하면 석탑의 始原은 중국이 한국보다 150-200여년 정도 빨랐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疆域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중국은 전형양식의 석탑이 성립된 후 확산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면, 한국은 비교적 빠르게 전파되어 중국보다 짧은 시간 안에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한국이나 중국 모두 고대 시대에 문화의 전파 속도가 지금처럼 빠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빠르게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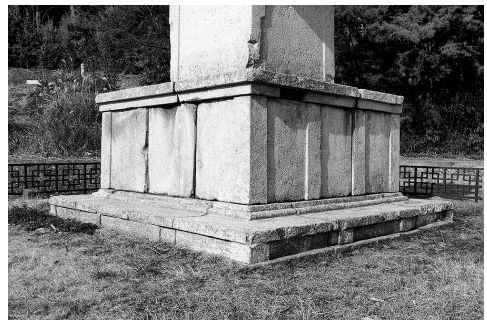
그리고 新羅와 隋唐代 석탑 중에서 典型樣式 석탑의 경우에 그 규모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양국 석탑의 기단부와 탑신부의 기본적인 구조, 높이와 규모도 비슷한 양

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治石과 조각 기법 등 세부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발견된다. 먼저 唐代 석탑의 기단부는 화려한 須彌座 형식으로 마련되었으며, 그 표면에 莊嚴的인 彫刻像들이 새겨진다(도 30). 반면 新羅 석탑은 面石部에 隅柱와 撐柱를 세우고, 甲石을 올려 간략하면서도 정연한 인상을 주는 架構式 基壇으로 구성된다(도 31). 또한 唐代 석탑은 기단부가 須彌座 형식이기 때문에 상하의 구조가 층으로 구분되기 보다는 여러 단으로 구성되는 특징을 보이는데, 新羅 석탑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높이는 다르지만 구조상 하층과 상층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2층기단으로 구성되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탑신부에서도 新羅와 唐代 석탑이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唐代 석탑은 1층 탑신을 상당히 높게 마련하고, 2층 탑신부터는 1층 탑신에 비하여 현격하게 낮게 구성한다. 2층 이상의 탑신은 상층까지 높이와 좌우 너비가 조금씩 채감되기는 하지만 큰 변화가 없다. 그래서 각 층의 옥개석이 1층에 비하여 상당히 촘촘한 간격을 이루면서 상하로 누적되어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唐代 석탑은 탑신부가 이러한 外觀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密檐形 양식이라고 한다. 반면 新羅 석탑은 1층 탑신을 높게 마련하기는 하지만 2층과 비교하여 3:1 정도의 비율로 하여 唐代 석탑처럼 현격한 차이를 두지는 않았다. 그리고 2층 이상의 탑신도 상층으로 올라가면서 높이와 좌우 너비가 조금씩 채감되기는 하지만, 각 층 옥개석의 높이와 간격이 어느 정도는 유지되도록 구성하였다. 新羅 석탑은 탑신부가 전체적으로 촘촘한 인상보다는 각 층이 하나의 층을 이루며 안정된 比例와 外觀을 형성하도록 했다. 그래서 新羅 석탑은 樓閣形에 가까운 양식을 취하고 있어 중국 당대 석탑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중국 唐代 석탑은 1층 탑신 정면에 내부 공간으로 통할 수 있는 門을 개설하고, 그 주변으로 神將像과 龍形像 등 莊嚴的인 彫刻像들을 화려하게 배치하였다. 또한 1층 탑신의 다른 면에는 銘文을 새겨, 석탑의 건립 시기와 목적 등을 알 수 있도록 했다. 1층 탑신에는 내부 공간을 넓게 마련하였는데, 이 공간에는 舍利莊嚴具나 發願者들의 시주품 등이 납입되었을 것으로 보



도 30 중국 安養 靈泉寺 東塔 기단부



도 31 경주 皇福寺址 三層石塔 기단부(692년)

인다. 내부 공간 벽면에도 불상이나 供養像 등을 새겨 佛龕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하였으며, 守護와 供養의 의미를 더하였다. 한편 신라 석탑들 중에도 기단부와 1층 탑신에 다양한 조각상을 새기는 경우도 있지만 唐代 석탑들처럼 화려하거나 莊嚴的이지는 않다. 그리고 新羅 석탑들 중에 1층 탑신에 형식적인 門扉를 새기거나 舍利孔을 마련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별도로 문을 개설하거나 탑신 안쪽에 佛龕처럼 넓은 내부 공간을 마련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중국 唐代 석탑은 1층 탑신이 핵심적인 공간임을 분명하게 표출하였지만, 新羅 석탑은 설계 시공 시 1층 탑신보다는 탑신부의 전체적인 외관과 형상에 중점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 唐代 석탑의 층수는 7층부터 15층까지 확인되고 있어, 탑신부가 7층 이상의 고층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전체 층수를 확인할 수 있는 唐代 석탑 중에서 가장 고층은 興國寺址 석탑으로 15층이다. 그런데 新羅 석탑은 3층이 가장 일반적이었으며, 보기 드물게 5층과 7층의 석탑이 건립되었다. 현재 新羅 석탑으로 나원리 5층석탑과 충주 탑평리 7층석탑이 비교적 고층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양국 석탑의 전체적인 규모는 비슷하지만 唐代 석탑은 기본적으로 고층으로 건립되었으며, 新羅 석탑은 唐代 석탑에 비하여 저층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隋唐代 석탑들의 평면은 사각형, 육각형, 팔각형, 원형 등 다양한 평면이 활용되었는데, 이중에서도 사각형 평면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新羅 석탑들의 평면은 사각형, 팔각형, 원형 등이 확인되고 있는데, 중국 隋唐代 석탑과 마찬가지로 사각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新羅와 隋唐代 모두 석탑의 평면으로는 사각형이 주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唐代 석탑 중에서 673년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法興寺 雙塔의 기단부는 사각형, 탑신부는 팔각형의 평면으로 두 가지 평면이 혼용되었다. 또한 735년 건립된 靈岩寺 석탑은 기단부에서 1층 탑신까지는 사각형, 1층 옥개석부터 꼭대기 층까지는 팔각형 평면으로 구성되어 있어, 同一 석탑에서 평면의 변화가 시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羊頭山石窟의 唐代 석탑들 중에서는 평면이 원형을 이루고 있다.⁵¹ 현재 新羅 석탑 중에서 慶州 天官寺址 석탑이 기단부가 2층인데 그 평면이 사각형이고, 탑신부는 3층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 평면이 팔각형으로, 보기 드물게 동일 석탑에서 두 가지 평면이 혼용되었다. 또한 石窟庵 3층석탑은 기단부에서 상층기단 面石部는 평면이 팔각형이고, 나머지 부재는 원형이며, 탑신부의 평면은 四角形이다. 이와 같이 石窟庵 3층석탑은 상륜부를 제외하고 동일 석탑에서 사각형, 팔각형, 원형의 3가지 평면이 모두 활용되어 중국 隋唐代와 新羅 석탑에서는 상당히 보기 드문 사례이다.

⁵¹ 唐代 건립된 圓形 平面的 磚塔으로 山西省의 栖岩寺址 大禪師塔(754年), 報國寺址 泛舟禪師塔(822年), 佛光寺 志遠和尚塔(844年) 등이 확인되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자료에 의하면 극히 예외적인 경우⁵²를 제외하고 新羅 석탑은 佛舍利를 봉안한 信仰과 禮拜의 주요 대상으로 사찰 가람의 한가운데 배치되었다. 그리고 신라의 경우 佛舍리를 봉안한 석탑과 僧侶의 遺骨이나 舍利를 봉안한 浮屠가 양식이나 사찰 가람에서의 배치 등에서 명확하게 구분되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新羅 불교는 佛格과 僧格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불교미술품을 조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중국 隋唐代에 건립된 석탑들 중에는 부처의 사리를 봉안한 佛舍利塔도 있지만 명문으로 보아 대부분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건립된 것으로 파악된다. 즉, 석탑 건립 목적이 특별한 일을 기념하거나, 특정한 인물을 위한 供養이나 追慕, 기념적인 조형물로 死後 極樂往生을 염원하고자 조성해 주는 墓塔으로 많이 건립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8세기 전반에 집중적으로 건립된 北京 云居寺의 석탑들을 보면, 대부분 釋迦 涅槃일을 기념한 供養과 더불어 亡者의 極樂往生을 염원하기 위하여 세워진 석탑들임을 알 수 있다. 명문이 남아있지 않은 상당수의 唐代 석탑들도 사찰 가람의 한가운데 위치한 것이 아니라 외곽이나 한적한 장소에 배치된 경우가 많다. 중국은 磚塔의 경우 기본적으로 佛舍利塔이 많지만 승려의 舍利를 봉안한 大形 磚塔으로 건립되어 사찰에서 중요한 장소에 배치되는 경우도 상당하다.⁵³ 이러한 것으로 보아 중국은 佛格과 僧格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불탑을 조성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중국은 唐代에 들어와 불교가 흥성하면서 불교를 통한 살아생전의 祈福 信仰과 佛教的 死後觀이 넓게 확산되었다. 불교적 사후관의 핵심은 阿彌陀佛이 주재하는 西方 極樂淨土에 往生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死後 極樂往生을 위한 追福과 供養 등의 의미로 佛像이나 塔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唐代 조성된 龍門石窟의 상당수 석굴이 권력층들의 발원으로 조성되었거나, 특정 인물의 死後 追福과 極樂往生을 염원하기 위하여 조성되었다. 석굴과 함께 塔도 조성되었는데, 塔은 亡者의 영혼을 追福함과 동시에 極樂往生을 염원하는 의미가 담겨있었다. 이와 같이 중국은 佛塔의 성격과 조성 배경이 다양했음을 알 수 있다.

V. 결론

중국 불교미술사에서 기단부-탑신부-상륜부를 갖춘 전형적인 양식의 석탑은 南北朝時代부터 건립되었다. 그리고 隋唐代에 들어와 불교의 성행과 함께 석탑 건립도 본격화되었다. 오늘

⁵² 대표적인 사례로 순천 금둔사 삼층석탑을 들 수 있다.

⁵³ 嚴基杓, 앞의 논문, pp. 169-215.

날 중국 隋唐代 石塔은 磚塔과 마찬가지로 황하유역에 있는 중요 도시들과 주요 교통로 상에 위치한 사찰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당시 불교문화의 성행과 전파 경로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 中國 隋唐代 石塔은 크게 亭閣形, 密檐形, 樓閣形 樣式으로 분류된다. 이 중에서 亭閣形 樣式은 隋代부터 唐代末期까지 꾸준히 건립되었다. 密檐形 樣式은 唐代 石塔의 전형양식이라 할 수 있는데, 盛唐時期에 供養이나 追慕 등을 위한 목적으로 많이 건립되었다. 樓閣形 樣式은 목탑을 가장 충실하게 번안한 석탑으로 많은 양이 건립되지는 않았다. 新羅의 경우 석탑은 일반적으로 佛舍利를 봉안하여 신앙과 예불의 중심대상으로 삼았으며, 사찰 가람의 한가운데 배치시켰다. 그런데 中國 隋唐代의 석탑은 다양한 목적으로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신라와 중국이 석탑에 대한 관념과 인식이 달랐음을 시사한다.

한편 中國 唐代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山西省의 羊頭山 6號石窟 석탑과 高平 舍利山 開化寺 석탑 등은 扶餘 定林寺址 5層石塔과 외관상 유사성을 보이고 있어, 中國 古代 石塔이 韓國 石塔의 始原에 영향을 준 것으로도 추정되고 있다. 얼핏 보아 먼저 건립된 중국 석탑과 나중에 건립된 백제 석탑이 전체적인 외관이나 부재의 처리 등에서 친연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基壇部와 塔身部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재들의 세부적인 치석과 결구 수법 등은 분명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한국 고대 석탑의 시원적인 양식이라 할 수 있는 彌勒寺址 石塔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는 중국 고대 석탑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중국 고대 석탑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하여 한국 석탑의 시원이라 할 수 있는 百濟 石塔이 순수하게 백제식 木塔을 창의적으로 번안하여 石塔을 자체적으로 창출해 낸 것인지, 아니면 중국 석탑의 영향과 전래로 새로운 스타일의 백제 석탑을 창출해 낸 것인지 등에 대한 문제가 밝혀지길 바란다. 또한 慶州 陵旨塔은 아직까지 원형이 밝혀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611년 單層 亭閣形 樣式으로 건립된 神通寺 四門塔과 673년 2層 亭閣形 樣式으로 건립된 法興寺 舍利塔은 통일신라초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慶州 陵旨塔의 원형을 추정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석탑으로 주목된다. 이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주제어(key words)_ 불탑(佛塔, Buddhist pagoda), 석탑(石塔, stone pagoda), 중국(中國, China), 한국(韓國, Korea), 수(隋, Sui dynasty), 당(唐, Tang dynasty), 신라(新羅, Silla dynasty)

■ 투고일 2016년 9월 15일 | 심사개시일 2016년 9월 20일 | 심사완료일 2016년 11월 10일 ■

참고문헌

1. 사료

『三國遺事』

『洛陽伽藍記』

『后漢書』

2. 한국문헌

신용철, 「統一新羅 石塔 舍利安置場所에 관한 考察」, 『불교미술사학』 제5집, 통도사 성보박물관, 2007.

楊 泓, 「中國 隋唐代 佛教 舍利容器」, 『불교미술사학』 창간호, 불교미술사학회, 2003.

엄기표, 「百濟 石塔의 先後에 대한 考察」, 『文化史學』 제16號, 韓國文化史學會, 2001.

_____, 「新羅와 中國 隋唐代 전탑의 양식 비교 연구」, 『新羅史學報』 35, 新羅史學會, 2015.

_____, 「中國 云居寺의 唐代 石塔에 대한 考察」, 『東岳美術史學』 第9號, 東岳美術史學會, 2008, pp. 213-236.

鄭永鎬, 「中國草堂寺鳩摩羅什舍利塔」, 『亞細亞文化研究』 1집, 아세아문화연구소, 북경 민족출판사, 1996.

周昞美, 「隋文帝의 仁壽舍利莊嚴 研究」, 『中國史研究』 제22집, 중국사학회, 2003.

洪再善, 「百濟系 石塔의 研究」, 『蕉雨黃壽永博士古稀紀念美術史學論叢』, 通文館.

3. 동양문헌

甘肅省文物工作院 炳靈寺文物管理所 編, 『中國石窟 永靖炳靈寺』, 文物出版社, 1989.

龔國強, 『隋唐長安城佛寺研究』, 文物出版社, 2006.

霍宏伟, 「洛陽發現唐代咸亨三年石塔」, 『文物』 2013年 第11期.

大內文雄, 「寶山靈泉寺石窟塔銘の研究 - 隋唐時代の寶山靈泉寺 -」, 『東方學報』 第69冊,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1997.

靈岩寺編輯委員會 編, 『靈岩寺』, 北京文物出版社, 1999.

劉敦楨 著·鄭沃根 外 共譯, 『中國古代建築史』, 世進社, 1995.

刘善·孙怀生, 「山东阳谷县关庄唐代石塔」, 『考古』 1987年 01期.

刘 朝, 「北朝至两宋时期河南古塔研究」, 郑州大学 碩士論文, 2013.

林章芹, 「武周時期石塔銘考釋」, 『文物春秋』 2010年 6期.

- 赴云旗,『武則天—唐代佛教』,『五台山研究』,1989(4).
- 史生輝,『草堂寺志』,陝西省戶縣草堂寺,2005.
- 常 青,『中國古塔的藝術歷程』,陝西人民美術出版社,1998.
- 孙 勳,『云居寺四座唐代石塔銘文的試析』,『北京聯合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第12卷 第4期 總第46期,2014年 10月.
- 宋新盛·王志榮·李相如,『武安市沿平村唐代石塔』,『文物春秋』,2004年 第6期.
- 安養市文物管理局 編,『安養文物精華』,文物出版社,2004.
- 杨宝顺,『河南安阳灵泉寺唐代双石塔』,河南省古代建築保護研究所,『文物』1986年 第3期.
- 楊效俊,『隋唐舍利瘞埋制度的形成原因及特点』,『考古与文物』2012年 第4期.
- 汪建民·侯偉,『北京的古塔』,學苑出版社,2003.
- 王景荃,『河南新郑县荆王庄发现两座唐代石塔』,『中原文物』1990年 第2期.
- 王仁波 主編,『隋唐文化』,學林出版社,1997.
- 殷光明,『北凉石塔分期試論』,『敦煌研究』1997年 第3期.
- _____,『北凉石塔述論』,『敦煌學輯刊』1998年 第1期(總第33期).
- 張國維,『运城市保存的几座唐代小型石塔』,『文物世界』2005年 第2期.
- 張寶璽,『北凉石塔藝術』,上海辭書出版社,2006.
- 张驭寰,『山西羊头山的魏、唐石塔』,『文物』1982年 第3期.
- _____,『中國古塔集萃』卷二,天津大學出版社,2010.
- _____,『中國塔』,山西人民出版社,2000.
- 赵克禮 著,『陝西古塔研究』,北京 科學出版社,2007.
- 鍾晓青,『安養靈泉寺北齊雙石塔再探討』,『文物』2008年 第1期.
- 震旦藝術博物館,『佛教文物選粹2』,震旦文教基金會編纂委員會,2005.
- 韓養民 編著,『佛骨靈光唐都皇家寺院』,三秦出版社,2003.
- 黃文昆 責任編輯,『永靖炳靈寺』,文物出版社,1989.

국문초록

중국 역사에서 불교는 남북조시대를 거치면서 주요 신앙으로 전개되며, 이후 隋唐代에 들어와 중심적인 종교로 황실에서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신앙된다. 불교 신앙의 중심에는 佛塔과 佛像이 있었는데, 사찰 기람의 필수적인 조형물로 중국 불교미술의 발전과 맥을 같이하였다. 이 중에서 불탑은 오늘날까지 중국 전역에 많은 양이 남아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양식은 磚塔이다. 그리고 石塔도 상당한 수량이 전해지고 있는데, 隋唐代에 들어와 전형양식의 석탑이 성립되었으며, 불교의 성행과 함께 본격화되었다.

오늘날 중국 수당대 석탑은 전탑과 마찬가지로 西安과 洛陽을 중심으로 황하유역에 있는 중요 도시들과 주요 교통로 상에 위치한 사찰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당시 불교문화의 성행과 전파 경로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 수당대 건립된 석탑은 크게 亭閣形, 密檐形, 樓閣形 樣式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에서 亭閣形 樣式은 隋代부터 唐代末期까지 꾸준히 건립되었는데, 승려의 祖師像이나 승리를 봉안하기 위한 墓塔의 양식으로 많이 채용되었다. 密檐形 樣式은 唐代 石塔의 典型樣式이라 할 수 있는데, 정연한 기단부를 갖추고 있으며, 탑신부는 고층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석탑은 盛唐時期에 특정한 일을 기념하거나 공양이나 추모 등을 위한 목적으로 많이 건립되었다. 樓閣形 樣式은 木塔을 가장 충실하게 翻案한 석탑이었다. 신라의 경우 석탑은 일반적으로 불사리를 봉안하여 신앙과 예불의 중심대상으로 삼았으며, 사찰 기람의 한가운데 배치시켰다. 그런데 중국 수당대의 석탑은 다양한 목적으로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新羅는 佛格과 僧格을 엄격하게 구분하였다면 中國은 크게 구분하지 않고 佛塔을 건립하였다. 이는 신라와 중국이 지닌 석탑에 대한 관념과 인식이 달랐음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한국의 시원적인 石塔이 木塔을 변안하여 건립되었다는 것은 충분히 알려져 있지만 중국 고대 석탑과의 유사성과 차이점 등은 연구가 미진한 편이다. 앞으로 중국 고대 석탑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하여 한국 석탑의 시원이라 할 수 있는 百濟 石塔이 백제 스스로 순수하게 木塔을 창의적으로 변안하여 石塔을 자체적으로 창출해 낸 것인지, 아니면 중국 석탑의 영향과 전래로 새로운 百濟 石塔을 창출해 낸 것인지 등에 대한 문제가 밝혀지길 바란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통하여 신라 석탑의 양식적 기원과 배경 등에 대한 문제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Characteristics of Pagodas Built during the Sui and Tang Dynasties and Their Comparison with Silla Pagodas

Eom Gi Pyo^{*}

In Chinese history, Buddhism became a mainstream religion in the Northern and Southern dynasties and then was established as the central religion in the course of the Sui and Tang dynasties, during which time it was widely practiced by all classes of people. Stupas and Buddhist statues are central to Buddhist religious practice and thus were essential components in Buddhist temples. Many stupas still remain throughout China today. The most common type of Chinese stupas is a brick pagoda. On the other hand, there are a number of stone pagodas. The typical style of the stone pagodas was formed during the Sui and Tang periods and spread along with increasing popularity of Buddhism.

Many of the stone pagodas from the Sui and Tang periods can be found in temples located in major cities in the Yellow River Valley, such as Xi'an and Luoyang, and along main traffic routes. This provides a useful reference for understanding the spread of Buddhist culture and its disseminating channels. The stone pagoda of the Sui and Tang eras can be roughly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wooden building, multi-story, and pavilion. The wooden building type of stone pagodas were built steadily throughout the Sui and Tang dynasties. This type of pagoda was primarily used to enshrine a monk statue or Buddhist

^{*} Dankook University

relics and employed the tomb-stupa form. The multi-story pagoda was the most typical stone pagoda form in the Tang period and was composed of a firm base with a high-rise, multi-story body. This pagoda was built in the High Tang period for commemorating a special day or as a place of offering. The pavilion type is the one that thoroughly copies the wooden pavilion structure.

Stone pagodas built during the Silla period usually enshrined Buddhist relics, arranged at the center of a temple and used as a central object for praying and practicing. On the other hand, the stone pagodas from the Sui and Tang periods were built for a variety of purposes. While the Silla made a sharp distinction between pagodas built for the Buddha and those built for monks, pagodas in China were built without such distinctions. This implies that the Chinese had different perception and ideas concerning the stone pagoda compared to the Silla people.

It is well known that the prototype of the Korean stone pagoda is the wooden pagoda. However,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Korean stone pagodas and those built in ancient China have not been fully studied. Through an in-depth study on them, I hope to determine whether the stone pagoda of Baekje, which is a prototype of the Korean pagoda, was created by Baekje people without any foreign influence or was built in consideration of Chinese stone pagodas. Based on these studies, the stylistic origin of the stone pagodas of the Korean Silla dynasty and their background can be better understood.